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지리산의 세 스님

백두대간의 끝자락 지리산 제곡에는 '물봉선'이 살고 있다. 맑고 서늘한 계곡에서만 자생하는 물봉선은 나비가 앉는 것은 허용하되, 사람의 손길에는 질색을 해서 나를 건드리지 말아오(touch-me-not)란 꽃말을 갖고 있다. 견줄 수 없는 난개발로 농약당하고 있는 우리 신하의 하소연을 대신 말하는 것만 같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리산 자락에 귀 밭아서 일찍부터 물봉선의 신음소리를 듣고 함께 알아온 스님들이 있다는 사실. 실상사의 수경 연관 도법스님이 그들이다. 50대 초반으로 세납도 비슷한 이 세 스님은 선승이면서도 자연과 인간을 함께 살리는 화두를 풀기 위해 나섰다. 정에서 공통점이 있다.

특히 이후 참선만 해온 수경스님의 수경스님은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 공동대표라는 중책을 맡아 지리산과 낙동강, 새만금 갯벌 살리기를 위해 용맹정진하고 있다. 화엄학림 학장인 연관스님은 화엄사상의 현대적 정립을 위해 정진하면서 수십년간 지리산을 오르내리며, 지리산의 생태계를 보살피고 왔다. 실상사 주지이자 인드라마생명공동체 상임대표인 도법스님은 부철한 논리와 일관성 있는 실천을 결미해 사회에서도 폭넓은 존경을 받고 있다.

자연과 사람을 함께 살리는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 공동대표인 수경스님은 이 세 스님이 이번에는 '맑은 물 푸른 산 숨쉬는 갯벌'을 주제로 나란히 100일 기도와 백두대간 종주에 들어간다. 수경스님과 도법스님은 16

일 지역 종교인들과 함께 100일 기도 입제에 든다. 이 결과는 동·서·좌·우·종교간 화합 기원 백두대간 종주(16일 출발), 지리산 도보순례(5월 6일~25일), 지리산 좌우의 희생자 해원상생 천도제(5월26일경) 등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행자적인 실천행이기도 하지만, 최근의 국내 정국이 이대로 가다가는 상극의 말발씨대로 치



닫고 말 것이라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것이기도 하다.

도법스님은 100일 기도 이후 화엄학림 출신 스님 8명과 함께 100일 결사에 들어가, 한국불교의 미래와 비전에 대한 연구도 병행할 예정이다. 연관스님은 53세라는 연세에도 불구하고 80여일간의 백두대간 종주에 도전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자연과 사람을 함께 살리는 진정한 방생불사에 매진하고 있는 이 세 스님들이 있기에 한국불교의 미래는 아직 어둡지 않은 것이다. 김재경 <취재1부 기자>

“사찰 문화재 관람료 부당 이득금 아니다”

서울지법, 천은사 상대 참여연대 반환소송 '기각'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16단독부판사 신종섭은 참여연대가 천은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문화재 관람료) 반환청구 소송 선고공판을 2일 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서부지원의 이번 판결은 사찰 문화재의 범위, 관람 행위의 개념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며, 참여연대가 천은사를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립공원 제도와 문화재 정책, 관람료 사찰 관람객에 대한 서비스 강화 방안 마련 등이 당면한 과제로 떠올랐다.

조계종 기획실은 선고공판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사찰이 국민들의 민족문화 향유와 정신적 귀의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 방향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해 5월 천은사와 천은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참여연대는 천은사를 상대로 낸 소장에서 “국립공원에 입장할 목적으로 천은사 근처를 지나쳤을 뿐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었으며, 관람하지도 않았는데도 관람료를 징수한 것은 문화재보호법 어긋난다”며 관람료 1000원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소송을 낸데 대해 천은사와 천은사, 조계종 총무원장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특별대책위는 재판 과정에서 천은사의 범위는 천은사 경내지이며, 따라서 입장객의 주관적 의사의 상관없이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천은사를 관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판결 직후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논쟁할 수는 없지만, 항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9면) 정성운 기자 (sejung@buddhapia.com)

총무원장 부존재 소송 '각하'

서울지법 "이유없다"

서울지법 민사17부(재판장 진병식)는 2일 정화개회회의측 정영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상대로 낸 총무원장자취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선고공판을 열고 “청구 취지 내용에 이유가 없어 각하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소위 정화개회회의의 부당한 주장이 세속의 법정에서도 불법적이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며 “우리 종단은 앞으로도 안정과 화합을 위

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스님은 99년 12월 '98년 11월 당시 총장이었던 율하스님에 의해 해산된 중앙총회에서 개정한 중원, 총무원, 총무원장선거법에 근거하여 총무원장으로 선출하였으므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정영스님은 서울지법의 각하 결정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스님은 또 1월 16일 서울고법 1회 중원총회의원 자격상실 확인청구 소송의 기각 판결에 대해서도 “편파적인 판결이었다”며 1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성운 기자

“지리산댐 불필요”

낙동강물이용조사단 수계조사

정부의 지리산 댐 건설이 사실상 불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했다. 낙동강물이용조사단은 1월 18일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서 지리산-낙동강 수계 제4차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기존 댐을 잘 관리하고 최적화하면 낙동강 목표수질 2급수 달성에 필요한 유지유량(79CMS)에 버금가는 물의 양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갈수조정댐 건설이 필요없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 공동대표 수경스님은 “조사단의 보고서가 지리산댐의 부적합성을 간접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내년 대선에 지리산댐 건설 계획을 부산 및 경남지역의 표를 확보하는 전략으로 다시금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조사단 보고서를 토대로 상반가내에 정책방향을 결정할 계획이지만, “지리산댐 건설계획의 포기”란 문구는 보고서에 명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재경 기자 (jkim@buddhapia.com)



자비의 바자회
 조계사가 주최한 실직자 돕기 기금마련 자비의 바자회'가 2월 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7일까지 일주일간 조계사 불교회관 1층에서 계속된다. 1일 개막식에는 대통령부인 이희호 여사,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 지하 조계종 총회 의장, 지총 조계사 주지, 일면 조계종 교육원장 스님 등 불교계 인사와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 박상규·조성준·추미애(이상 민주당), 손학규·전재희(이상 한나라당), 송광호(지민연) 의원 등이 참석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종교개혁 네트워크' 4월 구성

재가연대 등 종교단체

'NGO 연대기구' 제안

종교개혁을 위한 종교 시민단체 네트워크가 구성된다.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와 기독교 시민사회연대, 천주교 우리신학연구소는 1월 30일 재가연대 강의실에서 3대 종교 NGO 기획소위원회를 열고 오는 4월 26일 공동개최하는 '한국 종교개혁과 시민사회' 주제의 심포지움에 앞서 종교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종교개혁을 위한 NGO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해 구성된 아셈 2000 민간포럼 종교분과위원회에 참여한 50여 단체를 중심으로 연

대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기도 했다. 또 4월 26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하는 '종교 권력과 시민사회' 심포지움을 통해 '종교개혁' 논의에 불을 붙일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달라이 라마 방한

정부 연내허용 시사

정부 당국자는 1월 30일 달라이라마의 방한문제에 대해 “이미 양국 정부는 지난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얘기, 상호간의 충분한 의견교환을 했다”면서 “때가 되면 접점이 발견되지 않겠느냐”고 적절한 시기에 방한을 허용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김재경 기자

현대불교 지사·지국 모집

불법 홍보의 주역으로 각 지역의 신문 홍보와 구목 확장, 종교 사업을 전개할 합선하고 역량 있는 현대불교신문사 지사장을 찾습니다.

- 모집 지역(11개 지역)**
 강원북부·춘천, 강원 양구 일원, 경기·수원, 화성, 용인, 안성 일원, 충남·서산, 공진, 아산 일원, 경남1 진주, 산청, 거창 일원, 전남·순천, 여수, 보성 일원, 강원남부·원주, 영월, 정선 일원, 충북·충주, 제천, 진천 일원, 경북·문경, 상주, 예천 일원, 경남2 울산, 양산 일원, 전북 전역, 제주 전역
- 활동영역**
 관할지역 내 신문홍보, 구목확장 및 광고 영업, 본사 수의 사업 추진
- 제출서류 및 기한**
 구비서류: 자필이력서(사친부족 및 연차차 명기, 자기소개서, 사업활동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기한: 2001년 2월 17일(목)
 방법: 우편(기간내 도착본만 유효) 또는 본사 방문 접수
- 제출처**
 (우) 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고적부
 직통전화: (02)737-0090 대표전화: (02)737-8881 팩스: (02)737-0697

一心佛院
 각종 법사/불교 용품 일체
 大佛, 小佛, 佛龕, 燭台, 檀香, 鉢鉢
 02-725-2030/725-2040

기야신 법보종찰 해인사 대범종



천년을 이어갈 맑은 「범음」

장의 정신

종종사는
 오직 鐘만을
 생각합니다.



鐘宗社

서울 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 302호 ☎ 02)725-0878
 공 장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 043)212-0903

중량 3,300관